

[ID11] Analysis of Gravitational Wave Data with Distributed Computing

Sooil Lim¹, Hyung Mok Lee¹, Jinho Kim¹, Sang Hoon Oh¹ and Sang Min Lee²

¹*School of Physics and Astronom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²*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Daejeon, Korea*

We have carried out analysis of gravitational wave data with distributed computing which is a part of Korea@Home project supported by KISTI. Because real gravitational wave data is not available publicly, simulated data using LAL(LSC Algorithm Library) is used. Analysis of gravitational wave data needs repetition works on the segment of time series data, so distributed computing technique is a good method for analysis. Gravitational wave signals injected to noise were analyzed by matched filtering method. In this talk, we summarize procedures of production of signals, implementation on Korea@Home system of analyzing program and current results.

[ID12] 용어 표준화 연구 자체 표준안

김광태¹

¹*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학술 용어의 표준화 정비 사업은 한국학술단체연합회의 주관으로 우리 학회를 비롯한 많은 학회가 참여함으로서 금년 말을 종점으로 해서 현재 사용되는 과학 및 학술 용어 수십 만개의 표준화를 목표로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본 학회의 용어는 지난 2006년 10월 강원대 가을 학회 발표 이후 여섯 번의 전문위원 모임과 또 e-mail을 통한 회원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이제 학회내의 표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학회 표준안을 여러 회원들에게 소개한다. 용어 표준화란 영문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적합한 한글 용어를 택하는 작업이다. 적합한 용어가 다수일 때는 최선의 대안 두 개를 선택하여 이를 선호도에 따라 나열하였다. 표준화 사업이란 21세기 과학정보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된 21세기에 출현한 일종의 시대적인 요청이다. 21세기의 과학이란 소수의 전문가들의 것만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과학 용어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미리 전문 용어의 표준화를 기하는 것은 과학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들의 책임이며 동시에 과학발전의 기반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곧 도래할 자동번역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상업성과 직결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 한국천문학회도 천문학 관련 학술 용어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표준화함으로서 21세기에 천문학과 학회의 도약적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표준화 작업의 추진과정, 그리고 아직 문제 있는 몇몇 용어의 예를 발표를 통해 소개한다. 지금까지 학회차원에서 표준화된 용어들은 4월 말까지는 학회 web site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두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